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

(제128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일 시	의원명	질 문 내 용	답 변 자	비 고
계	8명	10건		
9. 21 (목) 10:00	강현삼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총수 운영계획에 대하여?(세부질문 4가지)	시 장	
		시 균형발전에 따른 시장의 견해는? (세부질문 4가지)	관광건설국장	
	성명중	참전동 샛터~고암동 의림지간 도로주변 개발에 대하여?(세부질문 3가지)	도시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9. 22 (금) 10:00	박기석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세부질문 5가지)	복지사업과장	
	조덕희	자양영당 관리실태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세부질문 4가지)	문화관광과장	
	김명섭	제천시 농업정책에 대하여? (세부질문 2가지)	부 시 장	
9. 25 (월) 10:00	김봉수	하소천 명소화 사업에 대하여?(세부질문1가지)	건설과장	
	양승경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에 대하여? (세부질문 3가지)	시 장	
	박성하	약초시장 활성화대책과 한방특화의 진행상황에 대하여?(세부질문 3가지)	부 시 장	
		제천시 분뇨(정화조 포함)처리에 대하여? (세부질문 5가지)	시 장	

답 변 서

질 문 의 원	강 현 삼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시 장 엄 태 영
제 목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총수 운영 계획에 대하여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방안은? ○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감축계획은? ○ 시산하 사업소 업무중 민간위탁 계획은? ○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기구개편 기본계획안은? 	
<p><u>답변내용</u></p> <p>제천시장 엄태영입니다.</p> <p>평상시 시정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의정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여 주시는 최종섭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p> <p>강현삼 의원님이 질문하신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공무원 총수 운영계획에 대하여 분야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첫번째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행정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p>	

-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성 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의 총액 즉 총액인건비를 정하고, 정해진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원 및 조직운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 지방조직관리의 방식을 현행 정원·기구수를 기준으로 한 표준 정원제에서 인건비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조직을 운용토록 하는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재 총액인건비제도는 2005년도 1단계 10개 자치단체(광역2, 기초8), 2006년도 2단계 9개 자치단체(광역2, 기초7) 등 총 19개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중이며,
-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 2007년 적용 총액인건비 산정 용역이 진행중으로 각 자치단체별 총액인건비 산정(안) 확정이 당초 8월로 계획 되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007년부터 총액인건비제가 실시되면 조직 및 인력운용 측면에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처가 가능해 지는 만큼 성과지향적인 직무역량강화가 수반되어야 자치행정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이제는 행정서비스의 양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최대 고객인 시민에 대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무엇보다도 공무원 개개인의 자질과 맡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우선 조직진단을 통해 행정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시스템을 보강하고 전공무원이 행정서비스의 개념을 고객중심의 혁신 마인드로 무장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교육 등을 활성화해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을 수 있는 조직 환경을 조성해 조직의 내부고객인 직원들의 만족도를 제고하므로 능동적이고 다양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이 체질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특히 시민과 최접점에 있는 본청 및 읍면동 민원창구로부터 현장 행정에 이르기까지 제도나 시책개선은 물론 친절을 근간으로 한 시민들의 피부에 닿는 행정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 두번째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공무원 감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현재 총액인건비제의 전면시행을 앞두고 시범자치단체가 선정되어 운영중이며, 인건비 산정 표준산식 개발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와 병행해 우리시에서도 총액인건비의 적정산출과 균형있는 조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재 행정조직 혁신진단이 실시되고 있으며 중앙의 총액인건비제 용역 결과에 맞춰 우리시의 적정 '인력규모 설계에 주력하자 합니다.

- 총액인건비제가 반영된 조직진단이 마무리 되면 인력의 총수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최소인력으로 최대의 경쟁력을 갖춘 조직을 설계해 실질적으로 일중심의 행정조직이 편제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중소도시가 안고 있는 공통과제이기도 한 인구감소 문제가 현안시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시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인구감소가 곧 공무원 감축이라는 공식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2003년도부터 자치단체별로 정원의 기준과 범위를 제시한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면서 전체적으로 정원이 늘어난 원인을 분석해 보면 중앙정부의 전국단위 시책사업의 공통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및 인력증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시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도 날로 다양화, 복잡화, 고급화 양상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관광분야, 기업유치분야, 민자유치 등 지역개발분야, FTA사업을 포함한 선진농업분야 등 현안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히려 전문 인력의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 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 현재 보유인력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와 능력위주 인사운영을 통하여 공무원 1인당 직무성과를 극대화하므로 실질적인 공무원 증원효과로 업무효율을 높이는 반면 인력 증원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세번째로, 시산하 사업소 업무중 민간위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 조례에 명시된 민간위탁의 목적을 보면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사실상 민간위탁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행정업무라 하더라도 대부분 공익성이 강한 관계로 행정효율 측면과 대민서비스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현실적인 구체적 접근이 전제된 민간위탁이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따라서 조직진단의 직무분석 과정에서 사업소의 업무전반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거쳐 실질적으로 인력감축이나 예산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대민서비스 증대는 물론 시설관리에 적정성을 기할 수 있는 분야는 민간위탁도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공익성이 강한 행정업무의 민간위탁은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지원되는 등 최소한의 수익성이 보장된 시설운영에 국한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시설물 소유에 따른 관리업무는 계속되므로 제한적인 위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전에도 우리시에서는 행정능률 향상 등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환경관리사업소나 청풍문화재단지, 박달재 자연휴양림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검토한 바 있으나

○ 수탁기관의 수익성 보장은 차제하고라도 공공성과 안정성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어 결국 직영을 결정한 사례도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사업소만이 아니라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민간위탁 가능성이 있는 직무는 분석하여 행정성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의 역량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네번째로,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기구개편 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지난해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선도자치단체로 선정, 특별교부금 3억중에서 조직의 유연성 및 성과관리 기반구축을 위한 행정조직 혁신진단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7년 전면 실시 예정인 총액인건비제와 연계하여 인력의 최적모델을 설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행정환경의 변화예측이 가능한 진단범위를 최대화한 2016년을 상위목표로, 성과 및 시너지효과를 집중화하기 위한 2010년을 현안목표로 접근해 민선4기 공약사업의 구체적 실천 조직, 고객중심의 경쟁력 우위 전략조직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 진단범위는 조직설계로 자치형 팀제모델 개발, 주민생활 지원 기능강화, 전부서를 대상으로 기능 통폐합·재설계 등을 실시하고, 직무가치 향상을 위하여 철저한 직무분석은 물론 총액 인건비제에 맞춰 종합적인 인력진단이 진행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따라서 이번 조직진단을 한마디로 기술한다면 미래 지방행정 환경의 변화를 예측하고 2007년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과 연계한 고객중심, 성과중심의 행정조직 혁신기반 구축에 있다 하겠습니다.
- 특히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건강한 조직의 체질을 갖추고 인력의 균형적인 배분과 운영을 통하여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창조적 혁신조직을 우리 스스로 만들자는데 근원적인 배경이 있음을 부언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앞으로 조직진단이 가시화되는 10월 중순경이 되면 여러 의원님께 구체적인 기구개편 기본(안)을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이 자리에서 신규 편제된 조직(안)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21C 우리시의 무한한 개발 잠재력을 극대화해 공직자가 중추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공직자 개개인의 전문성과 창의력을 앞세운 현실적인 접근과 투자, 그리고 혁신적인 시책추진이 가능하도록 성과형 조직과 인력운영에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종합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시가 민선4기 행정역량을 한껏 발휘해 지역 발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의원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두터운 애정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강 현 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강 현 삼 의원(자치행정위원회)
답 변 자	관광건설국장 신 태 훈
제 목	시 균형발전에 따른 시장의 견해는?
<p><u>질문요지</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부 편중개발에 따른 동남부지역 낙후 개선방안은 ?. ○ 시민편의시설 편중에 따른 향후 동남부지역 대책은 ?. ○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계획은 ?. ○ 도심공동화 현상 및 상권이동에 따른 후속대책은 ?. 	
<p><u>답변내용</u></p> <p>관광건설국장 신태훈 입니다.</p> <p>강현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천 낙후 동남부지역 개선방안 과 시민편의시설 확충, 그리고 태백선 철도이설에 따른 도시계획 정비방안에 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p> <p>제천 동남부 지역인 신백, 두학동과 주변지역은 철도와 하천 으로 인하여 도심과 분리된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 니다.</p> <p>이러한 여건은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되어, 대규모 개발에 다 소 소외되어 왔던것도 사실입니다.</p>	

현재 신백, 두학동 등 동남부 지역은 주거지역이 대부분이 개발 완료되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일부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께 불편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주거지역 개발에 치우쳐 간과되어온 문화, 복지, 공원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도시개발과 지역균형발전에 큰 장애요인 이었던 태백선 철도이설 사업이 지난 2004년 2월 의원님들과 지역주민께서 한 마음으로 노력하신 결과 시 외곽으로 이전키로 결정 되었으며

금년 6월 26일 건설교통부의 철도사업승인을 얻어 현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태백선 외곽이설이라는 큰 여건변화로 인하여 신백, 두학동을 비롯한 제천 동남부 지역은 보다 많은 개발수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에 대비한 도시계획 재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변화되는 지역여건을 감안하고 도시균형발전을 위해, 수립중인 도시기본계획에 신백,두학동등 동남부 지역을 시내지역과 같은 도심생활권으로 설정하여 충청북도에 승인신청 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이후 금년 말부터 진행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도심생활권에 적정한 동남부지역 개발이 가능토록 도시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계획수립 과정에서 주민의견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청취할 계획입니다.

다만, 도시계획의 기준이 되는 인구가 감소추세에 있어 단기 간내 개발효과를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현상 및 상권이동에 따른 후속대책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인구속에 주변지역 개발로 인한 인구의 이동과 이에 따른 도심 공동화 현상 그리고 상권이동은 어느 시군이나 큰 고민이 아닐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도심은 지역상권의 중심이라는 인식과, 과거로부터 이어오는 “본정통”이라는 역사성과 문화성을 간직한 잠재력이 우수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심재생은 이러한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심상업기능을 활성화 하는 것이 그 방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시는 차없는 거리를 새로운 문화거리로 재창출하여 주민께 제공하였고, 대규모 택지개발시 입주민을 위한 일부 상업기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중심상업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12월 완료목표로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생활권별 적정한 개발밀도를 제시하고 주거지역을 세분화 하여, 불필요한 고밀도 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가 가속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는등 도심재생을 시행할수 있는 법률적 뒷받침이 마련되었습니다.

금년 6월 제정된 특별법은 도심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정구역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하여 도심재생을 위한 각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수 있는 제도입니다.

필요시 제도권내에서 도심활성화를 위한 지구지정등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 변 서

질 문 의 원	성 명 중 의원(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도시개발과장 함 대 회
제 목	솔방죽 인근 도로 확·포장 및 청전뜰 개발과 관련하여 ?.

질문요지

- 청전동 샛터~ 고암동 의림지간 도로를 특수도로로 확·포장 설치할 계획은 ?.

답변내용

도시개발과장 함대회입니다.

성명중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전동 샛터에서 의림지간 도로를 특수도로로 확·포장 설치할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전동 샛터에서 경지정리된 청전뜰을 지나 의림지로 이어는 구간의 도로는 농로이면서, 시민께서 운동과 산책로로 활용되고 있는 도로입니다.

또한 이 구간은 많은 시민께서 이용하고 있는 구간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책등 특별한 기능을 갖춘 도로로의 정비가 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건강과 웰빙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샛터에서 의림지간 구간을 포함하여, 시민들께서 산책로등 생활체육 공간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구간에 대한 런닝로드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생활체육 다변화와 주민 편익증진을 위해 민선 4기 공약사업이며, 특수시책으로 추진중인 런닝로드 조성사업은,

현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을 포함하여 하소, 신백동 지역 등에 대한 주민 이용형태에 대한 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를 분석하고, 이용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을 수립한후, 웰빙과 건강을 위한 도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 당부드립니다.

답 변 서

질문의원명	성 명 중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답 변 자	기술보급과장 김 종 명
제 목	슬방죽 인근도로 확포장 및 청전뜰 개발에 관 련 하여?

질문요지

- 청전동 샐터 - 고암동 의림지 좌우 청전뜰을 약초재배 단지로 조성할 계획은 ?
- 청전동 샐터 - 고암동 의림지 좌우 청전뜰에 적합한 약초의 기술개발 계획은 ?

답변내용

-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김종명입니다.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청전뜰에 대한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과, 적합한 약초기술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전뜰에 대한 약초재배단지 조성계획입니다.

청전동 샐터에서 ~ 고암·모산동 의림지 좌우에 위치한 청전뜰에는 현재 논농사와 일부 인삼이 재배되고 있으나 약초재배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토지 소유주들의 협조가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만, 대부분의 토지 소유주들이 소득을 목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을

퇴직하고 노후 여가선용의 일환으로 영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벼농사 또는 인삼밭으로 임대하여 주는 임대차영농주가 대부분이며 약초재배가 타작물재배보다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고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작목으로 경제적인 면을 고려할 때 경작자의 의지 없이는 정착시키기가 매우 어려운 작목으로 우선 영농주의 인적 기반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약초 유통 전망으로 보아 중국산 수입약재의 가격이 국내산보다 저가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며, 금후 한·중간 FTA 협상도 머지않아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때, 국내산 약초 가격의 전망도 그리 낙관할 수는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청전들의 토양조건은 찰진흙 토양으로서 배수가 매우 불량하며 대부분의 약초가 뿌리를 사용하므로 배수가 불량할 시 뿌리가 썩어 적정량의 수확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이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인위적인 배수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약초를 재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찰진흙의 토양은 토양입자가 낱알구조의 조직을 가지고 있으므로 조금만 가뭄이 와도 가뭄을 많이 타고 조금만 비가와도 배수가 되지않아 약초가 생육하기에는 매우 열악한 토양이라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약초인 황기의 경우 기상조건에 따라 수량성이 민감한 작물로 장마기간이 길고 강우량이 많은 지역보다는 산간지대가 재배적지이며 품질도 우수합니다.

또한, 주야간 온도교차가 크고 토심이 깊으며 배수가 잘되는 곳에 재배해야 잔뿌리 발생이 적고 우수한 품질의 약초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청전뜰 지역은 토양조건 즉 토성, 배수, 토심 문제 등 오히려 약초 재배조건에 맞지 않는 실정으로 토양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작 등 피해가 나타나 현재 덕산, 수산 등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약초가 재배되고 있는 기반을 송학, 봉양, 백운 등 북부지역으로 산간지 위주로 확대 재배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 청전뜰에 적합한 약초의 기술개발계획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국산 수입약재와 국내산 약재중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약재는 오미자로서 수입오미자가 600g당 6,000 ~ 12,000원에 수입되고 있는가 하면, 국내산 오미자는 15,000원 ~ 18,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황기는 중국산일 경우에는 600g당 2,000원에 수입되고 국내산은 6000원 ~ 9,000원에 거래되고 있으므로, 우리시는 농가소득증대 차원에서 오미자와 물동량이 많은 황기를 주력품목으로 정하여 육성하고자 합니다.

황기의 경우 세명대학교와 산학협력사업으로 제천약초 황기의 차별화를 위해서 GAP 사업을 2005년 1차년도에 204,900천원의 사업비로

GAP 사업을 기술보급과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전국지자체에서 처음 시범적으로 24.2ha를 조성 특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약초영농조합법인이 GAP 품질인증에 필요한 우수농산물 관리시설로 2006년 8월 28일 인증을 받아 GAP 생산과 유통에 대한 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약초시장상인회, 사단법인 생약협회 등과 GAP 약초 유통에 대한 협의를 거쳐 농가측면에서는 단위수량 제고와 소득증대를, 브랜드 측면에서는 전국최초 GAP 황기 생산단지로 선점하는 등 현재 그 노력의 결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차년도인 2007년에는 220,000천원의 예산으로 32ha의 황기 GAP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08년 3차년도에는 42ha를 추진 실질적인 농가소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황기높은이랑 재배기술을 보급하여 2~3년에 수확하는 황기 재배기술을 1년에 수확할 수 있는 기술로 보급시켰으며 전국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아 농촌진흥청에서는 홍보자료로 촬영을 해가는 등 황기특수재배기술 보급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여 왔습니다.

오미자의 경우 2000년에 시범사업으로 0.1ha 조성을 계기로 2006년 현재 10ha를 조성 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ha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 이는 그동안 약초관련 소득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일 것 입니다.

단위 수량제고와 재배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반 관행적인 기술을 타파하여 지주설치, 관수시설설치 등을 보급하여 생력화, 토양 물리성

개선으로 수량(1,500kg/10a)을 높이고 있어 약초제배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전뜰에 대한 약초의 기술개발 계획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제배상의 문제가 예상되나 청전뜰에서 약초를 제배하고자 하는 농가를 조사하여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 차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명중 산업건설위원장님의 청전동 샛터 ~ 고암·모산동의림지 좌우 청전뜰에 약초제배단지조성계획과 약초의 기술개발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